

SNS와 의사소통



주제 개요

주제	SNS와 의사소통
학습 목표	논제에 대한 상반된 관점의 두 글을 읽고 주장과 근거를 파악할 수 있다. 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 말할 수 있다.
차시별 주요 활동	- 읽기 전 점검하기 + 글 읽기 (1/3) - 글 내용 확인하기 + 나의 삶과 연계하기 (2/3) - 찾아 읽기 (3/3) ★자기 주도 학습하기
제재 목록	-유레카편집부(2018), SNS가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할까, 디지털유레카, pp. 17-20.
관련 교육과정 (성취기준)	[12실국03-01]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표현한다. [12실국04-01]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로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한다.
지도 시 유의점 (수업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SNS가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할까’에 대한 상반된 관점의 두 글을 읽고, 각 관점의 주장과 근거를 파악한 후 자신의 입장을 구성하여 자신의 삶에서 SNS가 가지는 의미를 탐색하도록 지도한다.• SNS에 의한 인간관계 형성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접근하도록 유도하여 SNS의 속성과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때 논제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도록 안내한다.•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활동을 할 때에는 주장하는 글쓰기, 짝 학습, 모둠 토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SNS의 범위를 확장하여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DM),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 폭넓은 범위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단원 개관

- 본 단원은 직장 생활에서 공적·사적 의사소통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여 의사소통 역량과 대인 관계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SNS를 활용한 의사소통이 가지는 특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이 가지는 장단점을 파악하여 자신의 SNS 의사소통 문화를 점검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활동을 설계하였다. 이 단원을 통해 ‘[12실국03-01]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표현한다.’, ‘[12실국04-01]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로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한다.’라는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

읽기 전 점검하기


배경지식 활성화

- 인간관계를 매개하는 매체로서의 SNS 특성 파악

‘SNS와 인간관계’에 대한 상반된 관점의 글을 읽기 전에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SNS에 대해 예측해 보고 사용도가 높은 SNS를 중심으로 인간관계 형성의 측면에서 SNS가 가지는 매체로서의 특성을 이야기해 봄으로써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한다. 이 활동에서는 특히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SNS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초점을 두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관계 형성의 측면에서 SNS가 가지는 매체로서의 특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활동 시 유의점

- SNS의 사용 순위를 예측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전 SNS와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카카오톡, 네이버 라인 등)를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후 개방형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답변을 유도하거나 교육용 앱(소크라티브, 패들렛 등)의 투표 기능을 활용하여 시각화할 수 있다. 이후 학생들이 경험한 SNS를 사용한 인간관계의 형성 사례를 생각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통해 인간관계 형성의 측면에서 SNS의 특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때 특정 관점에 몰린 답변이 주를 이룰 경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교사가 상반된 관점의 특성에 대해 안내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의 순위를 예측해 보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SNS의 특성에 대해 말해 보자.

예시답안

- SNS 순위 예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트위터
-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SNS의 특성

자신의 경험	SNS의 특성
SNS에서 오랜만에 동창생의 소식을 접하게 되어 실제로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SNS의 능동적 인맥 탐색을 통한 인간관계의 확장
SNS에서 친구의 넓은 인맥을 보고 주눅이 들었다.	SNS의 인간관계 정보 공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형성
SNS에서 친한 친구의 포스팅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아서 친구와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	SNS의 의사 표시 기능으로 인한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누적
코로나 사태로 인해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SNS로 친구들과 이야기하게 되었다.	기존의 오프라인 의사소통에 부가적인 소통의 창구 역할 수행

교사 설명의 예


SNS는 원활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되어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기도 하지만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깊이 있는 인간관계의 형성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SNS가 자신의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를 환기하도록 하여 관계 형성의 기회를 넓혀 주는 SNS가 오히려 인간관계에 부담을 주는 일들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삶에서 인간관계를 형성·유지할 때 SNS의 특성을 고려하여 바람직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용 TIP

이 활동은 제재를 읽기 전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심화 활동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활동이다. 학생들이 알고 있는 SNS의 종류와 어떠한 SNS를 많이 사용하는지, 사용 순위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등을 물으며 흥미를 유발하도록 한다. 또한 SNS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인간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환기하여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 요인을 SNS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어휘 학습

- ‘SNS가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할까’에 제시된 용어의 대다수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휘들이다. 다만 SNS의 개념과 인용한 일부 개념에 대해 읽기 전 학습을 통해 명료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단원에서는 인간관계의 형성에 필요한 도구적 측면에서 SNS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므로 인간관계의 유지와 형성과 관련된 어휘의 학습이 요구된다.

 학생 활동지 [활동 1]에서 ‘SNS가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할까’를 읽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어휘를 미리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 1 ‘SNS가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할까’에 나온 주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빈칸을 채워 보자.

-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을 형성하여 다른 사람들과 ()할 수 있도록 응용 프로그램이나 누리집 따위를 관리하는 서비스이다.
- SNS는 인터넷을 통하여 쪽지나 파일,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인 ()와 구별된다.
-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어도 홀로 살 수 없으며, 사회를 형성하여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어우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 동물이다.

예시답안

-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응용 프로그램이나 누리집 따위를 관리하는 서비스이다.
- SNS는 인터넷을 통하여 쪽지나 파일,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인 (인스턴트 메신저)와 구별된다.
-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어도 홀로 살 수 없으며, 사회를 형성하여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어우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사회적) 동물이다.

교사 설명의 예

SNS는 온라인 공간에서 공통의 관심과 활용을 지향하는 이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상호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용자는 SNS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SNS’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의 형성을 목적으로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라는 점에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instant messenger)인 카카오톡, 라인 등과 구별된다. 최근에는 일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인 DM(Direct Message)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에 초점을 두어 논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글 읽기

☞ 주장하는 글의 특성을 고려하며 읽기

•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며 읽기

주장하는 글은 상위 주장과 하위 주장, 하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구성됨을 학생들에게 주지시켜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며 읽도록 지도한다. 특히 문단의 구분에 따라 각 문단별로 하위 주장과 그 근거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한다.

• 표시(marking)하며 읽기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에 주장과 근거를 다른 기호로 표시하면서 읽도록 지도한다. 이를테면 주장은 물결 표시, 근거는 밑줄, 주장과 근거의 관계를 나타낼 때에는 화살표 등을 활용하여 정보와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한다.

➡ 'SNS가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할까'[읽기 자료 1]를 읽으며 학생들이 학생 활동지 [활동 2]를 통해 하위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학생들은 빈칸에 들어갈 만한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 작성한다.

활동 2 [읽기 자료 1]의 내용을 읽으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워 보자.

- 2011년 한 기업에서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SNS의 보급으로 인간 관계의 폭은 (), 깊이는 ()고 응답했다.
- SNS로 인해 인맥이 확장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정작 소통의 내용을 보면 ()인 경우가 많으므로 SNS를 통한 인맥이 ()로 발전하기는 어렵다.
- SNS는 ()의 장에서 이루어지므로 자신의 감정을 () 털어놓을 수 없다.
- SNS는 짧은 글 속에 내용을 담아야 하므로 ()이 쉽지 않다.
- SNS 소통이 원활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으로 더 큰 ()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 SNS의 확산으로 (직접 대면)이 현격히 줄어 현실의 관계보다는 ()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 인간은 ()이므로 직접 ()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시답안

- 2011년 한 기업에서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SNS의 보급으로 인간 관계의 폭은 (넓어졌지만), 깊이는 (얕아졌다)고 응답했다.
- SNS로 인해 인맥이 확장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정작 소통의 내용을 보면 (의미 없는 일상의 나열)인 경우가 많으므로 SNS를 통한 인맥이 (진정한 관계)로 발전하기는 어렵다.
- SNS는 (온라인)의 장에서 이루어지므로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털어놓을 수 없다.
- SNS는 짧은 글 속에 내용을 담아야 하므로 (감정 전달)이 쉽지 않다.
- SNS 소통이 원활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 SNS의 확산으로 (직접 대면)이 현격히 줄어 현실의 관계보다는 (가상의 관계)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직접 (만나)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용 TIP

이 활동은 하위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파악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내용 중 앵커가 될 수 있는 단어나 어구를 활용하여 제시문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 해당 단어나 어구를 찾도록 지도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본문의 상위 주장과 하위 주장에 대해 생각해 보고, 해당 문장이 하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안내한다.

유의점

- 정보를 조회하는 '앵커(anchor)' 활용 전략 알려 주기

제시문의 정보와 문항의 정보를 비교하여 정보의 위치를 파악하는 조회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앵커'이다. 앵커는 문항의 정보 가운데 제시문의 정보가 위치한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이므로, 학생들이 읽기 자료를 읽으며 앵커에 해당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앵커를 활용하여 본문에 나타난 관련 정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글 내용 확인하기

☞ 주장하는 글의 구조 파악하기

- 주장하는 글의 하위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은 뒤 이들 간의 관계를 종합하여 구조화하는 활동을 통해 제시문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래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상위 주장과 하위 주장, 하위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의 관계를 명료하게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 학생 활동지 [활동 3]에서는 ‘SNS가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할까’의 하위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한다.

활동 3 위글의 하위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연결해 보자.

하위 주장	뒷받침 내용
1. SNS 인간관계는 알고, 오히려 SNS로 인한 스트레스는 많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의 인간관계는 약간의 견해 차이, 취향 차이만 생겨도 손쉽게,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2. SNS는 진정한 소통으로 보기 어렵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SNS는 온라인의 장이므로 소통을 할 때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 • ㉡ 소통을 위한 SNS가 지나치게 발달하면서 개인 정보 유출, 상대 메시지에 꼬박꼬박 답해야 하는 부담감, 포스팅하는 부담 등이 발생한다. • ㉢ 만나서 의논해야 할 일들도 기능적으로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생기면서 직접 대면이 현격히 줄어들어 버린다.
3. SNS는 현실 관계의 단절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짧은 글로 내용을 전달하는 SNS의 특성으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모니터나 휴대폰으로 하는 가상의 소통은 빈약한 소통이다.

예시답안

하위 주장	뒷받침 내용
1. SNS 인간관계는 알고, 오히려 SNS로 인한 스트레스는 많다.	SNS의 인간관계는 약간의 견해 차이, 취향 차이만 생겨도 손쉽게,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2. SNS는 진정한 소통으로 보기 어렵다.	㉠ SNS는 온라인의 장이므로 소통을 할 때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
	㉡ 소통을 위한 SNS가 지나치게 발달하면서 개인 정보 유출, 상대 메시지에 꼬박꼬박 답해야 하는 부담감, 포스팅하는 부담 등이 발생한다.
	㉢ 만나서 의논해야 할 일들도 기능적으로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생기면서 직접 대면이 현격히 줄어들어 버린다.
3. SNS는 현실 관계의 단절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 짧은 글로 내용을 전달하는 SNS의 특성으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모니터나 휴대폰으로 하는 가상의 소통은 빈약한 소통이다.

교사 설명의 예

- ㉠의 경우 4문단에 ‘SNS는 온라인의 장이다. 자신의 외로움이나 괴로움을 진솔하게 털어놓을 수 없으며,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시선을 의식하여 소통하므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기가 어려우므로 진정한 소통이라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 ㉡의 경우 3문단에 ‘개인정보 유출도 그렇지만 상대 메시지에 꼬박꼬박 답해야 하는 부담감, 포스팅하는 부담 등 소통을 위한 SNS가 지나치게 발달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담이 사용자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므로 SNS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 ㉢의 경우 6문단에 ‘편리성의 결과, 직접 대면이 현격히 줄었다. 만나서 의논해야 할 일들도 기능적으로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대면의 부재가 현실 관계의 단절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 ㉣의 경우 4문단에 ‘짧은 글 속에 담긴 내용을 맥락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읽을 때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SNS 메시지의 장르적 특성이 진정한 소통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교사용 TIP

하위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지도할 때 하위 주장의 핵심 정보를 먼저 찾고 이를 구체화하는 뒷받침 내용의 정보를 찾도록 안내한다. 특히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제시문의 정보 구조를 토대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의 삶과 연계하기

☞ 나의 삶과 관련지어 표현하기

☞ 학생 활동지 [활동 4]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SNS로 인해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친구들과 공유하도록 한다. 이때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험을 공유하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활동 시 유의점

- SNS로 인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경험은 비슷한 문제를 겪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이 활동은 짝 학습 혹은 모둠 학습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모둠 학습으로 운영 시 사회자, 지지자의 역할을 부여하여 원활한 공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한편 이러한 경험이 없는 학생이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꺼려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주변 혹은 뉴스 등에서 접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 4 나의 삶에서 SNS로 인해 인간관계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친구들과 공유해 보자.

예시답안

나는 인스타그램에 내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었는데 '좋아요' 수가 적어서 속이 상한 적이 있어. 이런 점에서 SNS에 포스팅을 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

나는 페이스북에서 중학교 때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는데 사실은 중학교 때 그리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이라서 대화를 주고 받을 때에도 민망한 경험이 있었어. 이런 점에서 SNS는 진정한 소통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아.

내가 트위터에서 팔로잉하는 계정을 학교 친구들이 보고서 놀린 적이 있어. 나의 개인적인 취미와 취향이 무분별하게 공개 되어 버려 취미에도 흥미를 잃어버리고 친구들과도 관계가 소원해졌어.

나는 이번 원격 수업 상황에서 선생님께 온라인 화상 회의 서비스의 채팅 기능을 활용해서 요즘 유행하는 온라인 언어로 궁금한 것을 여쭙봤는데 선생님께서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하셔서 선생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 같아. 실제로 만나서 여쭙봤다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온라인상에서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 내 의도와 다르게 상대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교사 설명의 예

SNS를 사용하면서 의사소통을 수행한 경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혹은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주체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들의 SNS 의사소통 사례를 경험한 경우도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환기하도록 이끌어 인간관계의 형성, 유지, 발전 측면에서 SNS가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혹은 방해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아울러 SNS를 통한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교사용 TIP

이 활동에서는 SNS를 사용한 의사소통에서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제시문을 바탕으로 명료하게 구체화하도록 하여 자칫 경험만을 공유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경험만을 제시할 경우 경험의 구체성에 매몰되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불명확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SNS가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친다는 극단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이때에는 이 활동이 SNS를 사용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데에 있음을 주지시키고, SNS의 올바른 활용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찾아 읽기

◉ 반대 관점의 글 읽기

- 이 단원에서는 ‘SNS가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할까’에 대해 부정적 관점에서 다룬 글을 다루었다. 찾아 읽기 활동에서는 반대 관점, 즉 긍정적 관점에서 다룬 [읽기 자료 2]를 통해 균형적 관점에서 SNS가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나아가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SNS의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이때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에 대해 조명한 사회학자들의 개념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논증적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느슨한 관계(약한 연결의 힘, strength of weak ties)’는 미국의 사회학자 마크 그라노베터가 주창한 개념으로 구직 과정에서 가족, 친한 친구 등 가까운 사람보다 친하지는 않지만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도출해낸 특정 사회적 관계를 말한다. ‘느슨한 관계’의 의미를 추론할 때 인간관계에서 ‘느슨하다’는 개념을 통해 의미 파악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군중 속의 고독’은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이 주창한 것으로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대 사회에 나타난 외부지향형 인간들이 타인의 생각과 관심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집단에서 격리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겉으로 드러난 사교성과 달리 내면적으로는 고립감과 불안으로 언제나 번민하는 모습을 말한다. 이러한 ‘고독한 군중(The Lonely Crowd)’이 바로 현대인의 자화상이라는 것이다. ‘군중 속의 고독’은 학생들이 많은 사람 속에서 고독감을 느낀 경험을 통해 해당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사용 TIP

문항의 정보에서 앵커를 찾아 제시문의 정보를 조회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학생들이 [읽기 자료 2]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해당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이 제시문의 경우 [읽기 자료 1]의 관점을 반박하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학생들이 두 관점의 차이를 떠올리며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SNS가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할까’에 대한 긍정적 관점의 [읽기 자료 2]⁶⁹⁾를 읽고 SNS를 활용한 의사소통의 장점이 무엇인지 찾아 빈칸을 채우는 활동을 통해 글 내용을 확인한다.

찾아읽기 1 윗글에서 제시한 SNS를 활용한 의사소통의 장점이 무엇인지 [읽기 자료 2]에서 찾아 빈칸을 채워 보자.

- ()를 훨씬 수월하게 해 주고, 이미 형성된 관계를 보다 ()시켜 준다.
- ()의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인간관계를 확대시켜 준다.
-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어 ()을 해소해 주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

예시답안

- (인맥 만들기)를 훨씬 수월하게 해 주고, 이미 형성된 관계를 보다 (강화)시켜 준다.
- (느슨한 관계)의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소통)할 수 있게 되어 인간관계를 확대시켜 준다.
-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어 (외로움)을 해소해 주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

교사용 TIP

문항의 정보에서 앵커를 찾아 제시문의 정보를 조화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학생들이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이 활동은 ‘SNS를 활용한 의사소통의 장점’을 정리하는 활동이므로, 그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찾거나 답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지도한다.

→ ‘SNS가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할까’에 대한 긍정적 관점의 글을 읽고 SNS를 활용한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의 장점을 고려하여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SNS의 활용 방안에 대해 모색하도록 안내한다. 이때 자신이 사용하는 SNS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체로서의 특성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찾아읽기 2 SNS 하나를 선정하여 해당 매체가 지닌 특징을 제시하고,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SNS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타당한 근거를 들어 말해 보자.

69) 유레카편집부(2018), SNS가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할까, 디지털유레카, pp. 22-24.

예시답안

- 내가 자주 사용하는 페이스북은 능동적으로 인맥을 찾아 주는 기능이 있어. 나의 관심사와 흥미를 고려하여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찾아 생산적인 취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
- 나는 인스타그램을 주로 사용해서 내 일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어. 나의 친한 친구들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즐거움을 나누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어.
- 나는 앞으로 취업하고 싶은 분야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자주 방문해서 관련 정보를 얻곤 해. 기업 담당자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나와 비슷한 진로를 가진 사람들과도 소통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

교사 설명의 예

이 활동에서는 SNS의 특성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SNS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로 인스타그램은 이미지와 해시태그를 공유하는 특성이 있으며, 페이스북은 능동적인 인맥 찾기 기능,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기능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SNS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SNS의 특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용



TIP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의 매체적 특성을 파악하게 하여 이 특성을 활용해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 중, 특정 매체가 가진 장점이나 특징을 떠올려 보게 한 뒤, 해당 장점이나 특징이 인간관계 형성이나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점은 무엇인지, SNS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아가 SNS가 인간관계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자기 주도 학습하기

○ SNS 시대에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

- ‘SNS가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할까’에 대해 SNS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공존함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SNS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활동에서는 최근의 SNS 경향에 대한 글을 읽고 SNS를 활용한 의사소통이 진정한 인간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바람직하게 SN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SNS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소통 양식인 ‘디지털 캠프파이어’의 개념에 대해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기주도 학습하기 1 다음은 SNS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소통을 보여 주는 글⁷⁰⁾이다. ‘디지털 캠프파이어’의 개념을 찾아 쓰고, 젊은이들이 전통적인 SNS를 떠나 디지털 캠프파이어로 이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써 보자.

젊은이들은 수년 간 소셜 미디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제는 공개 공간에서 무분별한 다수와 소통하는 것보다 관심사가 비슷한 진짜 친구를 사귀고 싶어한다. 사생활을 보호받길 원하고, 소셜 미디어에서 연결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한다.

Z세대들이 전통적인 소셜 미디어를 떠나 ‘폐쇄적이고 사적인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새로운 공간을 ‘디지털 캠프파이어’라고 부른다. 캠프파이어 주변에 모여 삼삼오오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와, 디지털을 합친 것이다. 소셜 미디어가 모든 사람이 드나드는 북적북적한 공방 같은 장소라면, 디지털 캠프파이어는 좀 더 친밀한 안식처 같은 곳이다.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즐겁게 소규모 모임을 형성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캠프파이어는 대표적인 3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현실 세계 친구와의 친밀감을 중시하는 개인 메시지 캠프파이어이다. ‘개인 메시지 캠프파이어’의 목적은 말 그대로 개인 간 혹은 소규모 모임 안에서 소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현실 세계의 친구들과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광고 대행사 ZAK이 실행한 2019년 설문조사에서는 30세 이하 응답자 1000명 중 3분의 2에 가까운 사람들이 공개된 포럼이나 피드보다 개인 간 메시지로 소통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두 번째는 관심사나 신념, 열광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모이는 온라인 모임인 마이크로 커뮤니티 캠프파이어이다. 이는 주로 비공개 또는 승인 후 참여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마이크로 커뮤니티 캠프파이어 또한 개인 메시지 캠프파이어와 마찬가지로 기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존재한다. 페이스북 그룹이 가장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의 ‘친한 친구’ 기능은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특정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팔로워 중 소규모 인원과의 소통할 때 효율적이다. 유튜브 또한 대표적인 마이크로 커뮤니티 캠프파이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유튜브 영상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있지만, 특정한 크리에이터 혹은 채널의 팬이 형성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해당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댓글로 자신의 관심사(크리에이터 혹은 영상 콘텐츠 등)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한다.

세 번째는 공통 관심사를 토대로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개 혹은 비공개 포럼인 공통 경험 캠프파이어이다. 그 사례로 생방송 플랫폼 트위치(Twitch)가 있다. 주로 게이머인 라이브 스트리머들은 자신의 게임 플레이를 설명하는 방송을 하고, 팬들은 스트리머의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채팅을 한다. 2019년 기준 트위치 사용자의 시청 시간은 5920

70) 조현우, 윤현중, SNS 시대의 종말? Z세대 ‘디지털 캠프파이어’로 소통한다, 인터비즈, 2020. 4. 7.
<https://m.blog.naver.com/businessinsight/221895774082>

역 분이다. 트위치는 최근 음악이나 스포츠 등 비게임 분야로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트위치의 주목적은 엔터테인먼트이지만,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즐거움을 통해 유대감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미래의 소통은 도구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진화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진정한 소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 SNS 시대의 종말? Z세대 ‘디지털 캠프파이어’로 소통한다(조현우, 윤현중)

예시답안


- 디지털 캠프파이어: 폐쇄적이고 사적인 온라인 소통 공간 /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즐겁게 소규모 모임을 형성하는 온라인 공간
- 디지털 캠프파이어로 이동하는 이유: 무분별한 다수와 소통하는 것보다 관심사가 비슷한 진짜 친구를 사귀고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

교사 설명의 예

제시문에서 최근의 젊은이들이 공개된 공간에서 무분별한 다수와 소통하는 것에서 벗어나 폐쇄적이고 사적인 온라인 소통 공간인 디지털 캠프파이어로 이동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2문단에서 디지털 캠프파이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이 형성된 이유를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즐겁게 소규모 모임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SNS 이용 행태의 변화는 무분별한 온라인 공간에서 벗어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을 나누기 위한 변화로 볼 수 있다.

교사용 TIP

제시문을 읽으면서 디지털 캠프파이어가 기존의 SNS와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끈다. 또한 SNS는 소통의 도구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디지털 캠프파이어와 같은 새로운 SNS 형태 또한 진정한 의사소통을 추구하기 위한 시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SNS 외에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소통 방안을 모색하여 온·오프라인에서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통해 인간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자기주도 학습하기 2 온라인 공간 외에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그 대안을 찾아보자.

예시답안

- 공통의 관심사, 흥미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지역 사회 소모임에서 소통하기
-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사람과 소통하기
- 가까운 주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교사 설명의 예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SNS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이때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회의 사교 모임, 운동 클럽, 지역 도서관의 독서 클럽, 콘서트, 지역 기업, 지역 주최 박람회 등 다양한 오프라인 의사소통 수단이 있음을 안내하여 학생들이 의사소통의 수단을 확장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교사용 TIP

해당 지역 사회의 각종 모임에 대한 자료를 간략하게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모임의 사례를 제시하여 오프라인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학생 활동지



제목

SNS와 의사소통

활동 1 'SNS가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할까'에 나 온 주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빈칸을 채워 보자.

-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을 형성하여 다른 사람들과 ()할 수 있도록 응용 프로그램이나 누리집 따위를 관리하는 서비스이다.
- SNS는 인터넷을 통하여 쪽지나 파일,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인 ()와 구별된다.
-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어도 홀로 살 수 없으며, 사회를 형성하여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어울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 동물이다.

활동 2 [읽기 자료 1]의 내용을 읽으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워 보자.

- 2011년 한 기업에서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SNS의 보급으로 인간관계의 폭은 (), 깊이는 ()고 응답했다.
- SNS로 인해 인맥이 확장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정작 소통의 내용을 보면 ()인 경우가 많으므로 SNS를 통한 인맥이 ()로 발전하기는 어렵다.
- SNS는 ()의 장에서 이루어지므로 자신의 감정을 () 털어놓을 수 없다.
- SNS는 짧은 글 속에 내용을 담아야 하므로 ()이 쉽지 않다.
- SNS 소통이 원활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 SNS의 확산으로 ()이 현격히 줄어 현실의 관계보다는 ()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 인간은 ()이므로 직접 ()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활동 3 윗글의 하위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연결해 보자.

하위 주장	뒷받침 내용
1. SNS 인간관계는 알고, 오히려 SNS로 인한 스트레스는 많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SNS의 인간관계는 약간의 견해 차이, 취향 차이만 생겨도 손쉽게,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 SNS는 온라인의 장이므로 소통을 할 때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
2. SNS는 진정한 소통으로 보기 어렵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을 위한 SNS가 지나치게 발달하면서 개인 정보 유출, 상대 메시지에 꼬박꼬박 답해야 하는 부담감, 포스팅하는 부담 등이 발생한다.• ㉢ 만나서 의논해야 할 일들도 기능적으로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생기면서 직접 대면이 현격히 줄어들어 버린다.
3. SNS는 현실 관계의 단절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짧은 글로 내용을 전달하는 SNS의 특성으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모니터나 휴대폰으로 하는 가상의 소통은 빈약한 소통이다.

활동 4 나의 삶에서 SNS로 인해 인간관계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친구들과 공유해 보자.

학생 활동지



제목

SNS와 의사소통

찾아읽기 1 뒷글에서 제시한 SNS를 활용한 의사소통의 장점이 무엇인지 [읽기 자료 2]에서 찾아 빈칸을 채워 보자.

- ()를 훨씬 수월하게 해 주고, 이미 형성된 관계를 보다 ()시켜 준다.
- ()의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인간관계를 확대시켜 준다.
-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어 ()을 해소해 주는 하나의方便이 된다.

찾아읽기 2 SNS 하나를 선정하여 해당 매체가 지닌 특징을 제시하고,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SNS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타당한 근거를 들어 말해 보자.

학생 활동지



제목

SNS와 의사소통

자기주도 학습하기 1 다음은 SNS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소통을 보여 주는 글⁷¹⁾이다. ‘디지털 캠프파이어’의 개념을 찾아 쓰고, 젊은이들이 전통적인 SNS를 떠나 디지털 캠프파이어로 이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써 보자.

젊은이들은 수년 간 소셜 미디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제는 공개 공간에서 무분별한 다수와 소통하는 것보다 관심사가 비슷한 진짜 친구를 사귀고 싶어한다. 사생활을 보호받길 원하고, 소셜 미디어에서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한다.

Z세대들이 전통적인 소셜 미디어를 떠나 ‘폐쇄적이고 사적인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새로운 공간을 ‘디지털 캠프파이어’라고 부른다. 캠프파이어 주변에 모여 삼삼오오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와, 디지털을 합친 것이다. 소셜 미디어가 모든 사람이 드나드는 복잡복잡한 공방 같은 장소라면, 디지털 캠프파이어는 좀 더 친밀한 안식처 같은 곳이다.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즐겁게 소규모 모임을 형성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캠프파이어는 대표적인 3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현실 세계 친구와의 친밀감을 중시하는 개인 메시지 캠프파이어이다. ‘개인 메시지 캠프파이어’의 목적은 말 그대로 개인 간 혹은 소규모 모임 안에서 소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현실 세계의 친구들과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광고 대행사 ZAK이 실행한 2019년 설문조사에서는 30세 이하 응답자 1000명 중 3분의 2에 가까운 사람들이 공개된 포럼이나 피드보다 개인 간 메시지로 소통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두 번째는 관심사나 신념, 열광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모이는 온라인 모임인 마이크로 커뮤니티 캠프파이어이다. 이는 주로 비공개 또는 승인 후 참여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마이크로 커뮤니티 캠프파이어 또한 개인 메시지 캠프파이어와 마찬가지로 기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존재한다. 페이스북 그룹이 가장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의 ‘친한 친구’ 기능은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특정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팔로워 중 소규모 인원과 소통할 때 효율적이다. 유튜브 또한 대표적인 마이크로 커뮤니티 캠프파이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유튜브 영상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있지만, 특정한 크리에이터 혹은 채널의 팬이 형성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해당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댓글로 자신의 관심사(크리에이터 혹은 영상 콘텐츠 등)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한다.

세 번째는 공통 관심사를 토대로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개 혹은 비공개 포럼인 공통 경험 캠프파이어이다. 그 사례로 생방송 플랫폼 트위치(Twitch)가 있다. 주로 게이머인 라이브 스트리머들은 자신의 게임 플레이를 설명하는 방송을 하고, 팬들은 스트리머의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채팅을 한다. 2019년 기준 트위치 사용자의 시청 시간은 5920억 분이다. 트위치는 최근 음악이나 스포츠 등 비게임 분야로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트위치의 주목적은 엔터테인먼트이지만,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즐거움을 통해 유대감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미래의 소통은 도구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진화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진정한 소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 SNS 시대의 종말? Z세대 ‘디지털 캠프파이어’로 소통한다(조현우,윤현중)

자기주도 학습하기 2 온라인 공간 외에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그 대안을 찾아보자.

읽기자료 1



“인간관계 도움 안 돼”

1. SNS 인간관계, 깊이는 얇고 스트레스는 높인다.

SNS가 효율적으로 인맥 만들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인간관계의 확장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풍요롭게’를 양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 온라인 인맥이 몇백 명, 몇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SNS가 인간관계의 질적 성장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SNS의 인간관계는 형식적이며 얇고, 파편화된 것이다. SNS에서의 관계는 클릭 또는 터치 한 번으로 만들어지는 손쉬운 관계다. 따라서 약간의 견해 차이, 취향 차이만 생겨도 손쉽게,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2011년 한 기업에서 임직원 4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SNS의 발달로 인한 인간관계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4%가 SNS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간관계의 폭은 넓어졌지만, 깊이는 얕아졌다고 응답했다.

〈헤럴드경제〉 기사에 의하면 직장인의 34%가 SNS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한다. 개인정보 유출도 그렇지만 상대 메시지에 꼬박꼬박 답해야 하는 부담감, 지속적인 포스팅에 대한 부담 등 소통을 위한 SNS가 지나치게 발달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가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SNS로 인해 소통의 시공간적인 제약이 사라졌고, 의사소통의 양이 늘었으며, 온라인 인맥이 확장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작 주고받는 내용을 보면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등 의미 없는 일상의 나열인 경우가 태반이다. SNS를 통한 인맥이 진정한 관계로 발전하기는 어려운 이유이다.

2. SNS는 진정한 소통으로 보기 어렵다.

경쟁과 속도로 숨 가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SNS가 현대인의 외로움을 덜어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소통의 기회를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소통의 내용을 보면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렵다. SNS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장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외로움이나 괴로움을 진솔하게 털어놓을 수 없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 많다 한들 진정한 감정의 소통에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더구나 SNS를 통한 감정 전달은 쉽지 않다. 짧은 글 속에 담긴 내용을 맥락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읽을 때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우리의 외로움은 여러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실하게 공감해주는 깊은 관계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SNS뿐만 아니라 IT 기술 발전으로 문자 메시지, 온라인 메신저 등 가상세계에서 사람들을 이어주는 매체가 늘어났다. 그런데 이런 가상 매체를 사용하는 십대와 성인들의 우울증 발병 빈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이것이 SNS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SNS가 소외감과 외로움을 덜어주고 우울증의 예방에 도

71) 조현우, 윤현중, SNS 시대의 종말? Z세대 ‘디지털 캠프파이어’로 소통한다, 인터비즈, 2020. 4. 7.
<https://m.blog.naver.com/businessinsight/221895774082>

움이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친구들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3. SNS는 현실 관계의 단절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의 확산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편리함을 주었다. 그러나 편리함이 늘어난 반면, 직접 대면 소통은 현격히 줄었다. 만나서 의논해야 할 일들도 대면 소통 없이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몇 년 동안 외부 거래처 사람들의 얼굴도 모르는 채 일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가.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점차 현실의 관계보다는 가상의 관계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가상의 관계에 의존하는 경향도 높아졌다.

어느덧 누군가를 만나서 상대의 표정 변화나 반응을 감지하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이 귀찮고 성가신 일이 되었다. 프랑스의 소통학자 도미니크 볼통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 말하고, 만지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모니터나 휴대폰으로 하는 가상의 소통은 빈약한 소통일 뿐, 진정한 소통은 직접 만나 대화할 때 시작된다고 역설했다. SNS는 현실 관계의 단절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

- SNS가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할까(유레카 편집부), pp. 17 ~ 20.

읽기자료 2



“인간관계 풍요롭게”

1. SNS는 인간관계를 효율적으로 확대, 형성, 강화해준다

SNS 경험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사용자의 친구 수, 성격, 직업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무조건 SNS가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해준다고 잘라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SNS가 현대인에게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SNS는 인맥 만들기를 훨씬 수월하게 해주고, 이미 형성된 관계를 보다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강력한 소통 수단이다. SNS를 통해 본래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과도 쉽게 관계 맺기가 가능하며, 나아가 세계 어느 곳의 사람이든 지리적 거리와 무관하게 교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대인 기피증 환자와 같은 대면 소통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의 인간관계 형성에 큰 도움을 준다.

물론, 한편에서는 SNS로 맺어진 인간관계가 능동적이지 않으며, ‘허상’에 가까운 관계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 점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는 SNS의 장점을 가릴 수는 없다. ‘이미 친한 관계’의 경우 SNS가 기존 관계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느슨한 관계’의 경우는 다르다. SNS가 없을 때에는 ‘느슨한 관계’의 사람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았고, 미니홈피나 블로그 같은 공간을 찾아다니기도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한 근황을 묻고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SNS는 이러한 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다. 잠깐의 시간만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좋은 정보를 빠르게 얻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SNS는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효율적으로 형성·강화하고, 확대해주는 좋은 매개체라 할 수 있다.

2. SNS는 소외된 현대인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소통의 장이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에 대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은 다음과 같다. SNS 덕분에 친구들의 소식을 알 수 있어서 좋고, 자주 못 봐도 근황을 알고 있어서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더 친밀한 느낌이고, 온라인이라는 제한이 있긴 하지만 SNS를 통해 주고받는 위로와 지지가 큰 도움이 된다고. 물론 직접 만나서 마주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는 것만큼 친밀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과거와는 달라진 현재의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 따라 소통의 방식도 변화하였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관계의 규모는 더 확장되었으며, 그만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는 더 힘들어졌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여유도 없어져서 리스먼이 말한 ‘군중 속의 고독’에 간헐 외로움을 겪고는 한다. 이와 같은 조건과 한계 속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SNS가 소중한 소통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오히려 IT 기술 발전과 SNS의 확산에 따른 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사람들을 더 외롭게 만든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현대인의 삶의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잘못된 지적이다. 앞서 말했듯, 현대인은 ‘외로움’을 수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삶의 조건을 지니고 있다. SNS는 이들의 외로움을 해소해주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트렌드모니터와 이지서베이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 중 40.9%가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 SNS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 효용성을 선불리 무시해서는 안 된다.

3. SNS로 인한 관계 단절은 일부 과몰입에 따른 부작용이지 SNS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종종 언론 매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메신저나 SNS 등 가상세계의 인간관계에만 집중한 결과 현실과는 유리된 삶을 산다고 비판한다. 또 SNS 때문에 실제적인 오프라인 관계를 멀리한다면서 SNS를 비롯한 가상세계에서의 친구 맺기가 오히려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SNS에 지나치게 몰입한 일부 개인의 문제이거나, SNS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미숙함 때문이지 SNS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SNS의 역사는 짧은 데 비해, 종류는 다양하고 그만큼 각각의 성질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 역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미디어 기능을 갖춘 SNS는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꽤 까다롭고 조심스러운 면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SNS 각각의 특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필요에 맞게 잘 사용한다면, SNS는 ‘인간관계 단절’을 부추기는 매체가 아니라, ‘관계와 경험의 확대’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기능할 것이다.

- SNS가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할까(유레카 편집부), pp. 21 ~ 24.

● 참고문헌

- 조현우, 윤현중, SNS 시대의 종말? Z세대 ‘디지털 캠프파이어’로 소통한다, 인터비즈, 2020. 4. 7.
(<https://m.blog.naver.com/businessinsight/221895774082>)
- 유레카편집부(2018), SNS가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할까, 디지털유레카, pp. 22-24.